

## 어린이 책꽂이

▲ 피라미드의 나라 고대 이집트= 짹한 지식의 나열에서 벗어나 재미와 유익함을 함께 주는 광활 플립북 시리즈. 플립을 들추고 책장을 넘기면 피라미드, 미라, 신전 등 신비함으로 가득찬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시공주니어·1만3천원〉

▲ 나는 노벨상을 받을 거야=말썽 만 부리고 장난만 치는 아이들의 심리를 간결하고 산뜻하게 표현한 그

립책.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등 모든 관계의 중심이 배려와 상호존중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 365 오늘의 역사(세계사편)=역사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책상 위에 두고 넘겨 볼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제작돼 매일 오늘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 볼 수 있다.

〈조선북스·1만3천500원〉

▲ 웨이싸이드 학교가 무너지고 있

어=기상천외한 상상력과 유쾌한 풍자로 가득찬 루이스 채커의 장편동화 '웨이싸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 흥숙작. 실수로 지어진 30층 짜리 웨이싸이드 학교에서 벌어지는 포복절도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창비아동문고·9천원〉

▲ 우리는 로켓클럽. 우주인이 될 거야=어린이가 우주인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읽기 편하고 재미있는 동화로 보여준다. 동화 사이사이에 우주인에 관한 정보를 담은 메모와 일러스트가 곁들여 흥미롭다.

〈현암사·8천500원〉

#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 밤의 문화사 로저 에커치 지음

밤은 낮과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영역으로, 나름의 규칙과 풍경, 나름의 소리와 냄새, 촉감으로 활기 넘치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밤을喻하는 '잠자고 먹고 방귀 퀴는 것밖에는 아무 일도 없던' 때로 무시하기 일쑤였다.

미국 역사학자 로저 에커치 교수는 집필한 '밤의 문화사'(원제 At Day's Close : Night in Times Past)는 태평적부터 오늘날까지 일연히 역사의 절반으로 존재했으나 간과된 '밤의 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중세 말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지역에서 밤의 현실적·미신적 위험에 직면해 어떻게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는지를 재구성해 냈다.

위험한 밤의 시간에 대해 국가는 통행금지에

서부터 야경(night wat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적인 억압조치를 실시했다. 1068년 영국의 정복왕 윌리엄은 영국 전역에 8시 통행금지령을 내



렸고 중세 유럽 곳곳에서 비슷한 제약 조치가 취해졌다. 대문을 닫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여름철에는 그보다 일찍) 낯낯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라는 종소리가 울렸다. 통행금지를 가리키는 영어 'curfew'는 '불을 덮으라'라는 뜻의 프랑스어 'couvre-feu'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밤이 위험한 시간으로서만 기

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낮의 사회적 제약이 완화되는 시간인 밤은 환락을 즐기며 각종 여흥을 만끽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재미난 이야기가 가득했던 아나네들의 바느질 모임, 가장무도회와 지하선술집, 요정과 마녀, 아방의 회합과 밀애 갖가지 엉뚱한 행각을 벌이던 사람들의 일상도 '밤'에 이루어졌다.

또 밤은 기간한 사람들, 노예, 동성애자, 종교적 소수에게 도피처가 되어 적어도 그 시간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다고 느끼게 했다. 에덴동산의 순수함을 다시 포착하려던 아담파들은 밤에 모여 나체로 예배를 보았으며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밤에 인접 농장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거나 춤을 추기도 했다.

상류층 귀족의 밤은 어땠을까? 런던에서 빈의 이르기까지 중세 말기부터 귀족들은 밤의 어둠에 맞서는 화로로운 어여거리를 만들어 냈다. 불꽃들이 암청난 인기를 끌었고, 새로운 기법의 무대 조명을 사용한 공연문화가 무대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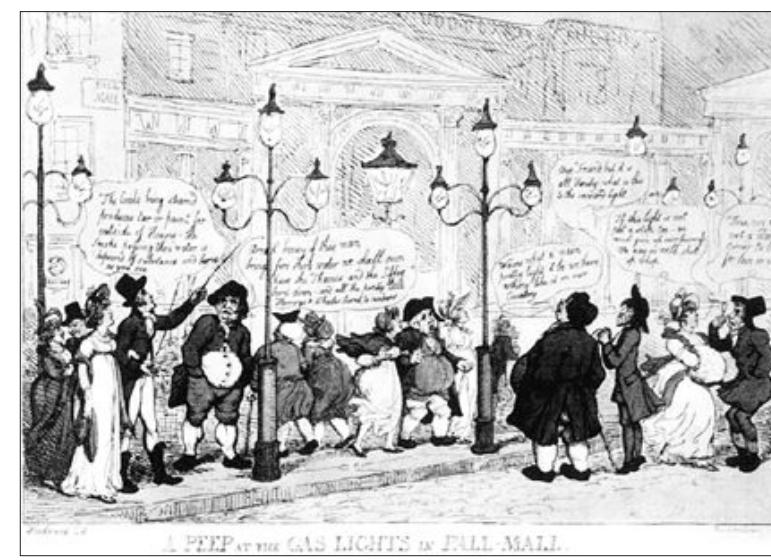
책은 이어 '낮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안식처'인 잠에 대해서도 탐구했다. 잠의 유형(산업화 이전 사람들은 보통 '첫침'을 잠 뒤 깨어나 활동하고 '두번째 잠'을 취했다)은 물론 취침 시간의 의식과 수면장애, 꿈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밤의 모습은 비교적 최근인 1730~1830년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하루를 빛의 종단 없이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조명을 거의 완전하게 누리게 된 20세기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의 '밤 문화'를 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이 책은 아울러 '낮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현대의 밤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도 선사 한다

〈돌베개·2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9세기 가로등은 사람들을 삶의 속도와 범위를 바꾸어 놓았다. 그림은 토머스 러런드슨의 '페렐가의 가스등 구경'.

## 中 '악덕 지주' 서문뇨의 끊임없는 윤회

### 인생은 고달파 1, 2 모옌 지음



현재 중국어권 작가 가운데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모옌이 신작 장편 소설 '인생은 고달파 1·2'를 펴냈다.

이번 장편소설은 1950년부터 2001년 새천년을 맞는 중국을 배경으로 악덕 지주로 낙인 찍혀 총살당한 뒤 여섯 번(나귀-소-돼지-개-원숭이-사람)의 윤회를 거듭하며 가족의 주위를 맴돈다는 서문뇨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특히 중국 현대사와 함께 펼쳐지는 이번 소설은 동양적·불교적 상상력을 활용한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30년간 농촌 소설만 집필해온 모옌은 1988년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한 장예모 감독의 '붉은 수수밭'의 원작인 장편소설 '홍과오랑' 가족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노니로 문학상,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창비·각권 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바흐·하이든 등 작곡가 23인의 이야기

### 조운범의 파워 클래식 조운범 지음



케이블 채널인 예당 아트 TV에서 방영되는 '조운범의 파워 클래식'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클래식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다양한 영상 자료, 거기에 실제 연주까지 더해진 강의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파격적인 형식의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악 4중주단 '콰르텟 엑스'의 리더인 바이올리ニ스트 조운범씨가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조운범의 파워 클래식'을 펴냈다.

강의 때 입장을 느낄 수 있는 책에는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부터 바르톡, 쇠베르크 윤이상까지 작곡가 23명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책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음악들을 직접 귀로 듣지 못하는 게 아쉬운 사람은 예당 아트 TV의 '다시 보기' 코너를 이용하길.

〈살림·1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밀란 쿤데라 '시인이 된다는 것'

이 시집을 어떻게 소개할까? 유명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도 아니고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시집도 아니고 시집의 편집만 보면 가볍기까지 해 보이는 이 시집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럼에도 나는 이 시집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뭘까?

체코와 프라하의 불 그리고 정치적 맹명. 소설 '농담'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저자, 시, 소설, 희곡, 문학비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는 1929년생의 늙은 대가.

이상은 시대의 암시이며 신의 웃음인 밀란 쿤데라에 관해 떠오르는 단상들이다.

그리고 더 떠오르는 무언인가 있는데, 아주 옛날 쿤데라의 '시인이 된다는 것'의 시집을 들고 허름한 보건소의 의자에 앉아 있던 나의 아픈 기억들, 글을 쓰겠다고 무작정 낮선 도회지를 찾아 떠났고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 몸이 아프면 마음에 꽃이 핀다고 했던가.

월요일이면 매일마다 나란한 보건소로 향했고, 가던 길의 끝에서 배꽃들이 흰 꽃처럼 떨어져 깨지며 그 무게만큼 땅위에 상처를

## 사랑·희망에 대한 열정

남기는 것을 보던 기억들, 하얀 알약처럼 단단하게 나를 가두웠던 깊은 잡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 보는 것의 의미하지/행동의 끝까지/희망의 끝까지/열정의 끝까지/절망의 끝까지/그 다음으로 셈을 해보는 것/그 전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왜냐하면 삶이라는 삶이 그대에게/우스꽝스러울 정도로/낮에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지. ('시인이 된다는 것은' 중에서)

늙은 대가가 말하는 '끝까지 가 보는 것'의 의미는 뭘까? 아마도 이 대가가 말하는 끝까지 가보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만큼은 다 받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이 시집 속에 포함된 많은 시들이 사랑에 대한 열정과 절망과 행동과 희망을 읊고 있다.

날 건드리지 말아요! 나 그대를 원치 않아요!/나 그대를 원치 않아요! 그대는 나의 불행, 죽음, 비참함이 될 거예요/나 그대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 그대를 사랑하니까. ('날 건드리지 마세요' 중에서)

그리고 위 시의 마지막 행에서 늙은 대가는 흐느낀다.

"내 사랑!" "내 사랑!"

끌까지 기본 사람들이 끝내 마지막으로 그 대상을 불들고 흐느끼며 내뱉게 될 말.

그 옛날, 차기운 보건소 의사에 앉아 담당의가 나의 이름을 호명해길 기다리며 내가 나를 부둥켜안고 흐느꼈던 바로 그 말.

"내 사랑!" "내 사랑!"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시집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이 시집을 통해 청춘의 한 시절, 끝까지 가본 그때의 나를 충분히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다.

최치언〈시인·희곡작가〉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 7·9 금 공무원 합격 강좌

◎ 직종 행교 세관 법 검 철 출교 보복 소기 정 육 무 세 원 활 공 관 정 호 지 방 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無等』은 "꼭" 합격 수 있는 확신을 드립니다!!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문의전화 010-6834-6253

##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당 접수중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시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밀집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서구점 ☎ 361-8111

▶ 능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 캐나다, 미국

##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